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5, Vol. 21, No. 4, 575～594.

공감 능력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민 문 경　　이 나 빈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공감 능력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 사회 정의 결과 기대, 사회 정의 관심이라는 사회 인지적 기제를 통해 사회 정의 실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53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 질문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한국어판 공감 지수 척도를 포함하는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뒤 연구 모형을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적 공감에 비해 정서적 공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인 모두 사회 정의 실천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별히 사회 인지적 기제를 거쳐 간접적으로 사회 정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능력이 일반적인 이타행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개념을 포함하는 사회 정의 실천 역시 예측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서적 또는 인지적 공감의 측면에서 사회 정의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인지 공감, 정서 공감, 사회 정의 실천, 사회 인지적 관점

---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Ewha Global Top 5 Project 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NRF-2014S1A3A203823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공감은 전통적인 심리학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온 주제이다. 본래 관찰자가 관찰한 것 "속으로" 자신을 투사하려는 개념인 독일의 미학 용어 Einfühlung에서 유래된 공감은 심리학의 영역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타인의 정서 상태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내적인 과정으로 확장되었다(박성희, 2004; Davis, 1994). 공감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입정에서 생각하거나 타인의 정서가 전염되는 것만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타인의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자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Davis, 1994; Gerdes, Lietz, Segal, 201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감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도 적용되어 심리치료의 필수적인 치료요인(Lambert & Bergin, 1994; Patterson, 1984)으로 밝혀져 왔다.

공감은 여러 가지 특성과 요소들을 포함하고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Baron-Cohen & Wheelwright, 2004; Davis, 1983; Hoffman, 1984; Lietz et al., 2011)으로 공감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에 비해 공감이 무엇인가에 관한 합의된 정의는 불분명하지만 대다수의 최근 연구들은 공감이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구별이 의미있다고 보는 추세이다(Blair, 2005; Singer, 2006). 인지적 관점에서 공감은 감정이나 동기를 인지해 내는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적인 추리와 상상력이 동원되기 때문에(박성희, 2004) 타인의 관점 수용(Feshbach & Feshbach, 1982; Hoffman, 2000; Stiff, Dillard, Somera, Kim, & Sleight, 1988)이나 일종의 의사소통 기능(Truax & Carkhuff, 2007)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서적 관점에서 공감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상태와 가깝기 때문에(박성희, 2004) 공유된 정서 또는 대리적 정서(Eisenberg & Miller, 1987a; Mehrabian, Epstein, 1972; Wispé, 1986)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공감의 인지적 측면이 타인의 정신적 상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황과 일치되게 '느끼는' 경험을 말한다(Edele, Dziobek, & Keller, 2013). 이러한 두 가지의 요소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공감을 이루며 어느 요소를 강조하고 세분화하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의 정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및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공감은 주로 도움 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어 조명되어 왔다(Eisenberg & Miller, 1987b; Stiff et al., 1988; Underwood & Moore, 1982). 공감의 결여는 따돌림, 공격적 행동, 폭력적 범죄와 연관 있었으며(Goleman, 1994) 높은 수준의 공감은 따돌림 피해자에 대한 방어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김은아, 이승연, 2011; Gini, Albiero, Benelli, & Altoè, 2007; Nickerson, Mele, & Princiotta, 2008). Batson(1990, 1991)의 공감-이타주의 가설에 따르면 공감은 이타주의적 동기, 즉 공감이 느껴진 상대에게 도움행동을 주려는 동기를 이끌어낸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필요를 지각하게 되면서 타인과 유사한 정서적 상태를 느끼는 공감이 유발되며 이는 이타적인 동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도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움 행동이 명백히 이타주의적인 마음 때문인지 혹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자기 본위적인 이유(Cialdini et al., 1987)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공감이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으며 경험적 연구들이 풍부하다(김용훈, 류리나, 한성열, 2012; Stocks, Lishner, & Decker, 2009; Van Lange, 2008).

구체적으로 정서적 공감과 인지 공감이 도움 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들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정서 공감이 도움 행동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ele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과 사회 정의 감수성이 도움 행동을 예측한 반면, 인지적 공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강지영(2002)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공감이 인지적 공감에 비해 인권옹호활동에 월등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이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혜리(2013)의 연구에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을 방어해 주는 집단의 정서 공감이 가해 집단보다 높았으나 인지 공감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Marjanovic, Struthers와 Greenglass (2012)는 자연 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도움 행동을 연구했는데, 정서적 공감이 도움 의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모두 실제 도움 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다만, 인지 공감은 자연 재해가 얼마나 예방 가능했는가라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판단과 상호작용하여 도움 행동을 예측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지적 공감은 재해의 책임자와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구분하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정서 공감이 인지 공감보다 도움 행동에 일관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조절하는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중 어느 한쪽이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회 정의 실천이란 큰 범주에서는 이타적인 도움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권력 관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Goodman 등(2004)은 사회 정의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자기 결정 수준을 높이는 자원들에 더 잘 접근하도록 사회적 가치, 구조, 정책, 실천 등을 변화시키는 학문적, 전문적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Constantine, Hage, Kindaichi와 Bryant(2007)는 사회 내에서 이민, 인종적, 민족적, 연령, 사회경제적 종교적 위상, 신체적 능력,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해 소외된 집단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원, 권리,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 정의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사회가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권한을 갖지 못한 집단에 대한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포함하기 때문에(Speight & Vera, 2004; Torres-Harding, Siers, & Olson, 2012; Vera & Speight, 2003) 개개인의 실천이 사회 정의 실현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된 공감과 이타적 도움 행동의 강한 관련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이 사회 정의 실천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 연구(Van Lange, 2008)에 따르면 공감이 이타적 동기와는 관련이 있었지만 평등주의와 같은 사회 정의 신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평등주의는 특성적인 것으로 공감이 평등주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평등주의 동기에 이타적인 동기를 촉발

시켜서 평등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실천이 아닌 개인의 신념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공감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사회 정의 실천은 일반적인 도움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회체제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민문경, 안현의, 2014) 공감과 사회 정의 실천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Bandura, 1986) 갈등 상황에서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 있다(김은아, 이승연, 2011; 정은진, 홍혜영, 2014; Gini, Albiero, Benelli, & Altoè, 2008). 공감과의 관련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오민식, 2012) 이는 공감수준이 높으면 타인의 관점을 조망하는 능력과 타인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유능감이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움 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승연, 2014; Gini et al., 2008)에서는 공감 수준만으로는 도움행동을 예측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그 관계에 기저하는 매커니즘으로서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에 따라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cognitive career theory, 이하 SCCT)을 이론적 틀로 채택하여 공감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Bandura (1986)의 사회 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나 믿음과 같은 개인 내 인지적 측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Lent, Brown, Hackett(1994)가 제시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인지적 기제인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흥미 형성 및 목표와 관련된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CCT 모형을 사회 정의 영역에 적용한 선행 연구들(Miller et el., 2009; Miller & Sendrowitz, 2011)에서 설정한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 사회 정의 결과 기대, 사회 정의 관심, 사회 정의 실천과 같은 변인들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SCCT 모형의 사회 정의 영역 적용은 사회인지적 기제(예,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와 사회 정의 옹호와의 관련성(Ollif, 2001; Van Voorhis & Hostetter, 2006), 사회 정의 옹호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실제 참여를 예측했다는 연구(Nilsson & Schmidt, 2005) 등에 의해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 것으로서 민문경, 안현의(2014)의 연구에서 국내 적용에 대한 타당성 역시 검증되었다. Bandura(1986)의 사회인지 이론과 Lent와 Brown(2006)의 연구에 기반하여 Miller 등(2009)이 각 변인들에 대해 정의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social justice self-efficacy*)이란 사회 정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능력에 대한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신념이다. 이는 개인 내적 차원(예, 자기 지각과 모니터링), 대인 간 차원(예, 사회적 불평등에 관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공동체 차원(예, 공동체의 특수한 요구를 평가하거나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제도적/정치적 차원(예, 차별적인 정책이나 관습에 맞서기)으로 구분된다.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은 사회 정의 옹호에 대한 의사결정, 옹호 활동에 쏟는 노력, 장애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 정의 옹호 활동을 지속할지, 사회 정의 옹호 대한 주관적 느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Bandura, 1997). 즉,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 경우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되며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 정의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 정의 결과 기대(*social justice outcome expectation*)는 사회 정의 활동을 수행했을 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말한다.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이 사회 정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 정의 결과 기대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회 정의활동을 수행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다.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 기대되는 경우 사회 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실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에, 사회적 소외계층을 도움, 물질적(예, 금전적 보상이나 특권에 대한 접근), 자기-평가적 차원(예, 개인적 가치나 이상을 실행)으로 분류된다. 셋째, 사회 정의 관심(social justice interest)은 사회 정의 활동과 관련한 좋음, 싫음, 무관심의 패턴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심은 실천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중요하다. 넷째, 사회 정의 실천(*social justice commitment*)은 자신이 계획한 사회 정의 활동과 관련된 선택-동의된 목표나 구체적인 수행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목표는 당장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간 동안 개인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목표나 실천을 성취하도록 행동을 동기화하는 역할을 한다(Lent et al., 2003).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이 사회 정의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회 인지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차원에서 구분하여 바라보았으며 사회 정의 실천과 같은 이타행동은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미래의 보답에 대한 기대로 인해 측정에 민감하기 때문에(Edele et al., 2013) 이를 통제하여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이 직접적으로(각각 경로 a, b) 또는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 사회 정의 결과 기대, 사회 정의 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인지 공감에 대한 경로는 c-g, c-f-j, c-e-h-j, c-e-i; 정서 공감에 대한 경로는 d-g, d-f-j, d-e-h-j, d-e-i) 사회 정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일대일 관계 안에서의 개인적 차원(Davis, 1994)에서 논의 되어온 공감을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권한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사회 정의 실천과 연관지어 탐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공감을 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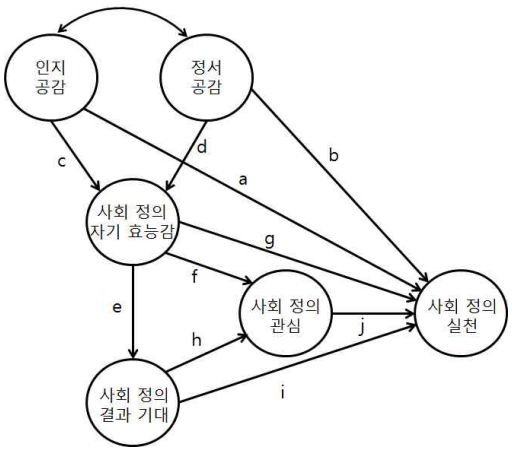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되면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이타행동이 증가되는 등 공감이 가져오는 효과에 초점을 둔 다수의 연구 기반 위에서 본 연구는 공감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 정의 실천이 이뤄지는 심리적 기제를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 경기 지역의 20대 인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 업체를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에 사용된 설문지는 사회적 이슈 질문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한국어판 공감지수 척도, 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구성된 총 94문항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였으며, 설문을 시작하는 첫 화면에 연구 전반에 관한 정보와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소요 시간은 30여 분 내외로 최종 분석에는 537부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264명(49.2%), 여성이 273명(50.8%)였으며, 평균 연령은 24.7세(*SD*=2.85)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42명(9.2%), 대학교 재학 228명(42.5%), 대학교 졸업 241명(44.9%), 대학원 졸업 26명(4.8%)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한 가족의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 20명(3.7%), 100-200만원 미만 75명(14.0%), 200-300만원이 116명(21.6%), 300-400만원이 115명(21.4%), 400만원 이상이 211명(3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사회적 이슈 질문지(Social Issues Questionnaire: SIQ)

본 연구에서는 Lent와 동료들(Lent et al., 2005, Lent, Lopez, Lopez, & Sheu, 2008)이 만든 학문적 행동 척도(Instrument of Academic Behavior)를 개작하여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 모형에 맞게 만든 Miller 등(2007)의 사회적 이슈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이슈 질문지는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20문항; 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금 활동이나 기부를 한다.”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 정의 결과 기대(10문항; 예,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의 변화가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 정의 관심(9문항; 예, “인권탄압, 차별,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책이나 기사를 읽는다.” 활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사회 정의 실천(4문항; 예, “향후 몇 년 간 나는 사회 정의 활동을 계속하거나 새로 참여할 계획이 있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사회 정의 사회적 지지와 장애(9문항; 예, 앞으로 사회 정의 활동을 할 경우,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나의 사회 정의 활동을 지지해 줄 것이다.”, “나의 사회 정의 활동을 부모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압박을 느낄 것이다.”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는지) 등을 측정한다.

국내에서는 민문경과 안현의(2014)가 이메일로 원 저자의 동의를 받아 SIQ의 문항들을 번역한 후 미국에서 장기 거주 경험이 있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특성을 잘 알면서도 이중언어구사가 가능한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토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는 하위

척도별로 문항 응답을 합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되며, 각 문항에 대해 0-9점까지 10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 중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 사회 정의 결과 기대, 사회 정의 관심, 사회 정의 실천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내적 합치도는 .96, .92, .92, .94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24: SDS-24)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김용석(2010)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응답하는 대신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인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이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좋은 기술과 태도를 소유한 인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무의식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자기 기만(16문항; 예,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과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의식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인상 관리(8문항; 예,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동한다.")를 5점 척도로 측정한다. 김용석(201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자기 기만 요인이 인상 관리보다 측정의 과대 추정과 더 큰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원점수와 수정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기 기만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 기만과 인상 관리 각각의 내적 합치도는 .87, .79이었다.

한국어판 공감지수 척도(Korean Empathy Quotient: K-EQ)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어판 공감지수 척도는 공감을 여러 차원에서 측정하기 위해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하고 Lawrence 등(2004)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허재홍과 이찬종(2010)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공감의 인지적 측면을 측정하는 인지 공감(10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정서 공감(3문항; 예,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을 볼 때 나는 마음이 동요된다."), 행동적 측면을 측정하는 사회기술(4문항; 예,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등 3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는 하위 척도 중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포함시켰다. 인지적 공감의 내적합치도는 .90, 정서적 공감의 내적 합치도는 .70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 및 AMOS 18.0, M-plus 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여 응답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의 과대추정과 상관이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자기 기만 하위 척도를 통제한 수정 점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을 따라, 측정변인들이 연구 모형에 사용된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모형이 연구대상자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설

명하는데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간명도를 고려하는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r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5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90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고(Hu & Bentler, 1999)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임을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의 개별적인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rapping; Shrout & Bolger, 2002)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각각 2와 4를 넘지 않아 구조방정식 모형에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변인들 간 관련성은 .27-.81 사이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미했다. 사회적 이슈 질문지의 변인인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관심, 실천 간에는 인지 공감 및 정서 공감과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관련성이(r=.60-.81)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천을 종속 변인으로,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관심, 인지 공감, 정서 공감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 및 기술 통계 결과 (N=537)

	1	2	3	4	5	6	7	8
1. 자기 효능감	-							
2. 결과 기대	.60**	-						
3. 관심	.81**	.62**	-					
4. 실천	.75**	.64**	.76**	-				
5. 인지 공감	.36**	.29**	.28**	.27**	-			
6. 정서 공감	.38**	.32**	.42**	.37**	.30**	-		
7. 자기 기만	.46**	.38**	.40**	.41**	.45**	.31**	-	
8. 인상 관리	.02	-.10*	-.00	.01	.02	.02	.26**	-
왜도	.67	-.10	-.08	.09	-.02	-.54	.19	1.04
첨도	-.19	-.07	-.02	-.34	.37	1.09	-.70	.36
M	5.43	5.61	5.46	5.30	3.38	3.54	7.33	1.83
SD	1.54	1.52	1.72	1.93	.63	.66	3.99	1.90

*p<.05, **p<.01, ***p<.001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VIF값이 독립 변수 각각에 대해 3.23, 1.72, 3.32, 1.21, 1.27로 기준값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통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문항 내용의 특성 상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변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자기 기만 하위 척도를 통제하였다. 수정 점수를 산출한 과정은 본 척도의 개발 논문(김용석, 2010)을 따랐다. 먼저 각 변인을 종속 변수로 자기 기만 점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계수를 구한 다음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고려하기 이전의 원점수에서 회귀계수와 자기 기만 점수를 곱한 점수를 감하였다. 각 변인의 원점수와 수정 점수를 계산한 결과 및 그 차이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 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문항 수가 많은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관심 변인에 대해 추정되는 모수치의 수를 줄임으로써 추정 오차를 감소시켜주는 문항 꾸러미(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를 제작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에 순서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순서대로 각 꾸러미에 할당하여 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대해 유사한 요인부하량을 갖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chi^2(155, N=537)=593.535$, $p<.001$; *TLI*=.938; *CFI*=.950; *RMSEA*=.073 (90% CI [.067-.079])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TLI, CFI*는 .95보다는 작지만 .90보다는 높아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고, *RMSEA*는 .05보다는 크지만 .08보다는 작아 괜찮은 적합도를

표 2.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각 변인의 수정 점수

변인	원점수	수정 점수	원점수-수정점수	*t*
	평균(*SD*)	평균(*SD*)		
자기 효능감	5.43(1.54)	4.15(1.37)	1.28	42.55***
결과 기대	5.61(1,52)	4.54(1.40)	1.07	42.55***
관심	5.46(1.72)	4.20(1.58)	1.26	42.55***
실천	5.30(1.93)	3.85(1.75)	1.45	42.55***
인지 공감	3.38(.63)	2.86(.56)	.52	42.55***
정서 공감	3.54(.66)	3.16(.63)	.38	42.55***

***$p<.001$

보였다.

측정 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은 .89-.90, 결과 기대는 .83-.93, 관심은 .74-.93였으며 실천은 .84-.93, 인지 공감은 .80-.87, 정서 공감은 .42-.89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정서 공감 중 한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42로 신뢰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합도를 기준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기로 했다. 잠재 변인 간 상관은 .13(인지 공감-실천 장애)-.84(자기 효능감-관심)까지 분포하며 모든 잠재 변인 간의 상관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3개의 측정 변인으로 6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측정 모형은 잠재변인을 잘 구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측정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잠재 변수	측정변수	요인 부하량	*SE*	*Z*
인지 공감	꾸러미 1	.868***	-	-
	꾸러미 2	.799***	.045	20.706
	꾸러미 3	.842***	.046	21.686
정서 공감	문항 1	.415***	-	-
	문항 2	.669***	.210	8.452
	문항 3	.890***	.277	7.751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	꾸러미 1	.892***	-	-
	꾸러미 2	.901***	.030	31.611
	꾸러미 3	.890***	.029	30.779
	꾸러미 4	.898***	.028	31.417
사회 정의 결과 기대	꾸러미 1	.826***	-	-
	꾸러미 2	.927***	.041	27.257
	꾸러미 3	.922***	.042	27.084
사회 정의 관심	꾸러미 1	.888***	-	-
	꾸러미 2	.931***	.032	32.209
	꾸러미 3	.736***	.038	20.950
사회 정의 실천	문항 1	.892***	-	-
	문항 2	.940***	.032	34.619
	문항 3	.834***	.035	26.678
	문항 4	.838***	.036	26.921

***p<.001

구조 모형 검증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통해서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159, N=537)=607.670$, $p<.001$; *TLI*=.939; *CFI*=.949; *RMSEA*=.073(90% CI [.066-.079])로 나타나 잠재 변인들로 이루어진 구조 모형이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 모형과 마찬가지로 *TLI, CFI*는 .90보다 높아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고, *RMSEA*는 .08보다 작아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 잠재 변인으로 설명되는 분산은 자기 효능감이 11.8%, 결과 기대가 32.9%, 관심이 73.5%, 실천이 66.1%였다. 그림 2와 같이 정서 공감, 인지 공감에서 실천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구조적 모수는 유의미했다.

다음으로 정서 공감, 인지 공감이 실천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95% 신뢰도 수준에서 10,000번의 표본을 추출하는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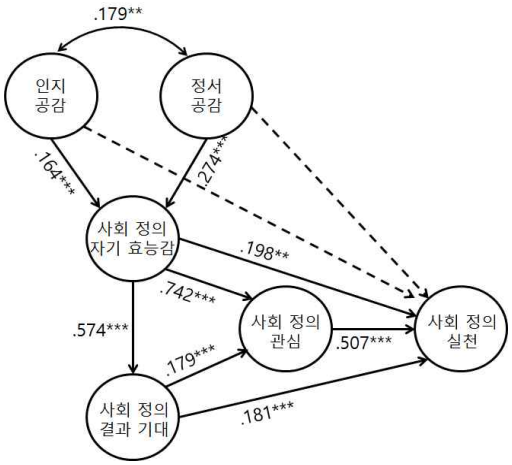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연구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p<.05$, $^{**}p<.01$, $^{***}p<.001$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결과, 표 4와 같이 인지 및 정서 공감에서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실천에 이르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부트스트래핑 검증은 비대칭적 분포를 이루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보다 정확한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의 설정에 의해 생성된 특정 수의 부트스트랩 표본

표 4. 간접 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표준화된 경로계수)

경로	종속 변인	*B*	*SE*	95% CI
인지 공감→자기 효능감	실천	.031	.018	[-.004, .061]
인지 공감→자기 효능감→관심	실천	.063*	.025	[.014, .111]
인지 공감→자기 효능감→결과 기대→관심	실천	.009*	.004	[.001, .016]
인지 공감→자기 효능감→결과 기대	실천	.017*	.008	[.002, ..032]
정서 공감→자기 효능감	실천	.053	.028	[-.002, .108]
정서 공감→자기 효능감→관심	실천	.106***	.029	[.048, .163]
정서 공감→자기 효능감→결과 기대→관심	실천	.015**	.005	[.005, .024]
정서 공감→자기 효능감→결과 기대	실천	.029**	.011	[.007, .050]

$^{*}p<.05$, $^{**}p<.01$, $^{***}p<.001$

을 활용해 신뢰구간을 산출한다. 만약 간접효과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특별히, 최종 연구 모형의 독립변인인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이 종속 변인인 실천에 미치는 총 간접 효과는 각각 .119, .202로 나타났다 (p<.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권의 20대 53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조건 하에 공감 능력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즉,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 각각이 사회 정의 실천에 직접적으로 또는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 사회 정의 결과 기대, 사회 정의 관심 등 사회인지적 기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결과, 인지 공감, 정서 공감에 비해 사회 정의 관련 변인들인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관심, 실천에서 원점수보다 수정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정의 실천과 같은 이타행동은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미래의 보답에 대한 기대로 인해 과대추정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민문경, 안현의, 2014; Edele et al.,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 정의 영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여 측정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 모형을 검증한 결과,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은 사회 정의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정의 실천을 넓은 범주의 이타행동으로 보았을 때 공감이 이타적인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Van Lange, 2008; Stocks et al., 2009)들과 일관된 결과이다. 동시에 이타적인 도움행동과 유사하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영역인 사회 정의 실천에 대한 공감 능력의 영향력이 밝혀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이 직접 사회 정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며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 사회 정의 결과 기대, 사회 정의 관심과 같은 사회 인지적 기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은 자기 효능감을 통해, 자기 효능감과 관심을 통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 및 관심을 통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사회 정의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감 능력은 자기 효능감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타인의 정서 상태를 공유하면서 이타주의적 동기가 촉진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 실천에 대한 효능감이 상승하는 현상(오홍석, 하정희, 2010; 한영숙, 현성용, 이종구, 조현철, 2007; Crowe & Higgins, 2000)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높아진 자기 효능감은 실천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며 사회 정의 실천에 따른 결과가 긍정적인 것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사회 정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켜 가까운 미래에 사회 정의 활동을 실천할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이 높다면 갈등 상황에 개입하는 것에 따르

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김은아, 이승연, 2011; Gini et al., 2008)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사회 정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감뿐만 아니라 실천을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자기 효능감을 통한 결과 기대가 실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으로서(민문경, 안현의, 2014) 사회 정의 활동 수행에 대한 신념만으로는 직접 실천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기대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정서 공감의 총 간접효과가 인지 공감의 총 간접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정서 공감이 사회 정의 실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서 공감이 인지 공감보다 도움 행동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들(강지영, 2002; 김혜리, 2013; Edele et al., 2013)과 일관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인지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판단하고 그를 바탕으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관여되어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한 타인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사회 정의 실천에 대한 동기를 더욱 많이 이끌어낼 것이다. 개별 경로를 살펴보면, 인지 및 정서 공감이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사회 정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이 단독으로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 및 정서 공감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사회 정의 결과 기대, 사회 정의 관심 등 사회 정의 자기 효능감과 사회 정의 실천을 매개하는 사회 인지적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또는 인지적 공감의 측면에서 사회 정의 실천을 촉진할 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정서적 공감의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접촉 경험이 중요하다. 사회 과학자들은 홀로코스트에서의 잔혹행위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Laub & Auerhahn, 1989) 지속적인 사회적 접촉이 공감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Ang & Goh, 2010; de Wied, Gispen-de Wied, & van Boxel, 2010). 이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서적 처리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알아차리게 하는 공감의 bottom-up 방식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지적 측면에서는 top-down 방식으로서 사회 맥락적인 요소들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는 권력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인종, 민족, 성 정체성을 교차하여 존재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관점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지각틀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Freedberg, 2007).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깊은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차별의 경험을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 실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며 사회적 책임감이 강화될 것이다(Segal, 2011; Wagaman, 2011). 마지막으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아우르는 차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타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의 위치성(positioning)을 새롭게 인식하는 성찰(reflecting) 학습이 중요하다.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타인의 경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게 되는 원리에 따라(DeTurk, 2001; Swigonski, 1994) 사회 구조적으로 자신과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글, 비디오 등을 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재해석하는 작업들이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다(Gerdes, Jackson, Segal, & Mullins, 2011).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분리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면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정의 실천 동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 능력과 이타적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절변인으로 성차가 고려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더욱 높은 공감 수준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나(Warden & Mackinnon, 2003) 따돌림 피해자에 대한 실제적인 방어행동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공감과 도움 행동의 관련성을 더 많이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결과들(Barchia & Bussey, 2011; Bryant, 1982)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 정의 영역에서도 사회적 위치성의 차이에 따라 성차가 공감과 사회 정의 실천과의 관련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감 능력에서 실천으로 가는 경로를 규명하는데 본 연구에서 검증한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관심과 같은 사회 인지적인 기제 뿐만 아니라 또다른 매개 변인들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원칙(Wilhelm & Bekkers, 2010), 사회적 책임(Lee, Kang, Lee, & Park 2005) 등도 공감과 실천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정의 실천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여 공감과 사회 정의 실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경로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참고문헌

강지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 행정학, 12(3), 1-39.

김용훈, 류리나, 한성열 (2012). 도움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공감과 공정성이 도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3), 349-366.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 효능감, 학급 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김혜리 (2013). 또래괴롭힘 참여역할에 따른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1-20.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민문경, 안현의 (2014). 사회 인지 관점에 따른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 모형의 검증: 국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133-154.

오민식 (2012). 중학생 또래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오홍석, 하정희 (2010). 동기특성 변인들이 공기업 직장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조절초점, 업무동기,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515-532.

이승연 (2014). 중학생의 공감, 사회적 자기 효능감, 지각된 규준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89-109.

정은진, 홍혜영 (2014). 중학생의 공감과 이타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3), 13-26.

한영숙, 현성용, 이종구, 조현철 (2007). 학습기술과 학습동기 및 자기 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2), 153-172.

허재홍, 이찬종 (2010). 공감지수 (EQ) 척도의 심리측정 속성. 인문과학연구, 24, 183-200.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Ang, R. P., & Goh, D. H. (2010).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and gende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1*(4), 387-97.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Barchia, K., & Bussey, K. (2011). Predictors of student defenders of peer aggression victims: Empathy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4), 289-297.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Batson, C. D. (1990). How social an animal? the human capacity for caring. *American Psychologist, 45*(3), 336-346.

Batson, C. D. (1991).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Hillsdale, NJ.

Blair, R. J. R. (2005). Responding to the emotions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4*(4), 698-718.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2), 413-425.

Cialdini, R. B., Schaller, M., Houlihan, D., Arps, K., Fultz, J., & Beaman, A. L. (1987). Empathy-based helping: Is it selflessly or selfishly motiv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749-758.

Constantine, M. G., Hage, S. M., Kindaichi, M. M., & Bryant, R. M. (2007). Social justice

and multicultural issue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and training of counselors and counseling psychologis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1), 24-29.

Crowe, E., & Higgins, E. T. (1997). Regulatory focus and strategic inclinations: Promotion and prevention in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2), 117-132.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Westview Press, Boulder, CO.

DeTurk, S. (2001). Intercultural empathy: Myth, competency, or possibility for alliance building? *Communication Education, 50*(4), 374-384.

de Wied, M., Gispen-de Wied, C., & van Boxtel, A. (2010). Empathy dysfunc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 626*(1), 97-103.

Edele, A., Dziobek, I., & Keller, M. (2013). Explaining altruistic sharing in the dictator game: The role of affective empathy, cognitive empathy, and justice sensitivit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96-102.

Eisenberg, N., & Miller, P. A. (1987a). *Empathy, sympathy, and altruism: Empirical and conceptual link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292-316)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Eisenberg, N., & Miller, P. A. (1987b).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

Feshbach, N. D., & Fes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Potentialities and limitations.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3), 399-413.

Freedberg, S. 2007. Re-examining empathy: A relational-feminist point of view. *Social Work, 52*(3), 251-259.

Gerdes, K. E., Lietz, C. A., & Segal, E. A. (2011). Measuring empathy in the 21st century: Development of an empathy index rooted in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 and social justice. *Social Work Research, 35*(2), 83-93.

Gini, G., Albiero, P., Benelli, B., & Altoè, G. (2007). Does empathy predict adolescents' bullying and defend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3*(5), 467-476.

Gini, G. Albiero, P., Benelli, B., & Altoè, G. (2008). Determinants of adolescents'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ce, 31,* 93-105.

Goleman, D. (1994).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s, Inc, New York, NY.

Goodman, L. A., Liang, B., Helms, J. E., Latta, R. E., Sparks, E., & Weintraub, S. R. (2004). Training counseling psychologists as social justice agents: Feminist and multicultural principles in a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6), 793-837.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 103-131)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Lambert, M. J., & Bergin, A. E. (1994). The effectiveness of psychotherapy.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4th ed.)*. (pp. 143-189) John Wiley & Sons, Oxford.

Laub, D., & Auerhahn, N. C. (1989). Failed empathy - a central theme in the survivor's holocaust experience. P*sychoanalytic Psychology, 6*(4), 377-400.

Lawrence, E. J., Shaw, P., Baker, D., Baron-Cohen, S., & David, A. S. (2004). Measuring empath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mpathy quotient. *Psychological Medicine, 34*(5), 911-919.

Lee, D. Y., Kang, C. H., Jee, Y. L., & Park, S. H. (2005). Characteristics of exemplary altruists. *Th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5*(2), 146-155.

Lietz, C. A., Gerdes, K. E., Sun, F., Geiger, J. M., Wagaman, M. A., & Segal, E. A. (2011). The Empathy Assessment Index (EAI):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mpathy. *Journal of the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 2*(2), 104-124.

Lent, R. W., & Brown, S. D. (2006).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ocial cognitive constructs in career research: A measurement guid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1), 12-35.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4), 458-465.

Lent, R. W., Brown, S. D., Sheu, H. B., Schmidt, J., Brenner, B. R., Gloster, C. S., ... & Treistman, D. (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Academic Interests and Goals in Engineering: Utility for Women and Students at Historically Black Univers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84.

Lent, R. W., Lopez, A. M., Lopez, F. G., & Sheu, H.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the prediction of interests and choice goals in the computing disciplin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52-62.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Marjanovic, Z., Struthers, C. W., & Greenglass, E.

R. (2012). Who helps natural disaster victims? assessment of trait and situational predictor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ASAP), 12*(1), 245-267.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4), 525-543.

Miller, M. J., Sendrowitz, K., Connacher, C., Blanco, S., Mun iz de la Pen˜a, C., Morere, L., & Bernardi, S. (2007). *Development of the SIQ*. Unpublished manuscript.

Miller, M. J., Sendrowitz, K., Connacher, C., Blanco, S., Mun˜iz de la Pen˜a., Bernardi, S., & Morere, L. (2009). College students'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495-507.

Miller, M. J., & Sendrowitz, K. (2011). Counseling psychology trainees'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159.

Nickerson, A. B., Mele, D., & Princiotta, D. (2008). Attachment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roles as defenders or outsiders in bullying interaction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687-703.

Nillson, J, E, & Schmidt, C. K. (2005). Social justice advocacy among 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An initial explor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 267-279.

Oliff, C. E. (2001). Can 28 days make a difference? A case study of Community Aid Abroad's community leadership program. *Australian Geographical Studies, 39*, 353-364.

Patterson, C. H. (1984). Empathy, warmth, and genuineness in psychotherapy: A review of review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1*(4), 431-438.

Segal, E. A. (2011). Social empathy: A model built on empathy, contextual understanding, and social responsibility that promotes social justic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3), 266-277.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Singer, T. (2006). The neuronal basis and ontogeny of empathy and mind reading: Review of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us, 30*(6), 855-863.

Speight, S. L., & Vera, E. M. (2004). A Social Justice Agenda Ready, Or No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1), 109-118.

Stiff, J. B., Dillard, J. P., Somera, L., Kim, H., & Sleight, C. (1988). Empathy, communication, and prosocial behavior. *Communication Monographs, 55*(2), 198-213.

Stocks, E. L., Lishner, D. A., & Decker, S. K. (2009). Altruism or psychological escape: Why does empathy promote prosocial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5), 649-665.

Swigonski, M. E. (1994). The logic of feminist standpoint theory for social work research. *Social Work, 39*(4), 387-393.

Torres-Harding, S., Siers, B., & Olson, B. D. (201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justice scale (SJ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0(1-2), 77-88.

Truax, C. B., & Carkhuff, R. (200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raining and practice.* Aldine Publishing Co, Hawthorne, NY.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1), 143-173.

Van Lange, P. A. (2008). Does empathy trigger only altruistic motivation? How about selflessness or justice? *Emotion, 8*(6), 766.

Van Voorhis, R. M., & Hostetter, C. (2006). The impact of MSW education on social worker empowerment and commitment to client empowerment through social justice advocacy.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2*(1), 105-121.

Vera, E. M., & Speight, S. L. (2003). Multicultural competence,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Expanding our rol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3), 253-272.

Wagaman, M. A. (2011). Social empathy as a framework for adolescent empowerment.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3), 278-293.

Warden, D., & Mackinnon, S. (2003). Prosocial children, bullies and victims: An investigation of their sociometric status, empathy and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Th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 367-385.

Wilhelm, M. O., & Bekkers, R. (2010). Helping behavior, dispositional empathic concern, and the principle of car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3*(1), 11-32.

Wispé, L. (1986).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e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14-321.

논문 투고일 : 2015. 03. 31
1 차 심사일 : 2015. 04. 20
게재 확정일 : 2015. 10. 22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5, Vol. 21, No. 4, 575～594.

The Effect of Empathy on Social Justice Commitment: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Moon-Kyung Min Na-Bin Lee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urposed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pathy on social justice commitment from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Specifically, we examined how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affect social justice commitment through social justice self-efficacy, social justice outcome expectation, and social justice interest which represent a social-cognitive path of behavior. Based on the self-report survey sample of 537 people in their twenties, we first controlled social desirability, and then analyzed the measurement and structure model using Structure Estimate Modeling(SEM).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both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ndirectly affected social justice commitment through the path of the social-cognitive model. However, affective empathy had a larger effect size compared to cognitive empathy. Results suggest that empathy competence has an effect on not only general altruistic behavior as known before but also social justice behavior which include the value of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Finally, ways for facilitating social justice commitment in terms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were suggested.

Key words :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social justice commitment, social-cognitive perspective